

菱花文의 東西交流*

김 리 나**

- I. 머리말
- II. 遼·北宋·金 미술에 보이는 능화문
- III. 고려 공예품에 보이는 능화문
- IV. 元·明代 청화백자와 칠기의 능화문
- V. 이슬람 금속기의 능화문과 중국의 영향
- VI. 맺음말

I. 머리말

터키 이스탄불의 토크피 博物館(Tokapi Sarayi)에는 중국에서 가져온 많은 陶磁器들이 소장되어 있는데 대부분 元시대에서 明, 淸시대의 陶磁들로 특히 靑磁와 靑華白磁들이 많다. 이 도자기들은 당시 이슬람 문화권에 전해진 선물의 일부이거나 대표적인 무역품목의 하나였다. 특히 토크피 박물관에 있는 중국 도자 중에는 器形이나 도자 표면에 문양의 띠로

* 이 논문은 1998년도 홍익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집필되었음.

** 홍익대학교 교수.

구획을 하는 점 등 서아시아지역의 금속공예품과 비교되는 예들이 많다. 또한 청화백자의 문양에도 이슬람 문양의 특징적인 연속 아라베스크 花文을 연상시키거나 새로운 형태의 화려한 모란창모문 또는 화조문 등이 등장한다. 이로 보아 이슬람 문화권에서 도자를 수입할 때에 자신들이 선호하는 문양을 넣도록 주문하였거나, 또는 중국에서도 그들의 취향에 맞게 이국적인 문양을 선택하여 장식한 수출 도자를 제작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토카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원의 청화백자 문양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菱花文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도^{22, 23}. 이 문양은 중국의 도자기뿐 아니라 文樣博, 칠기 또는 금속기에도 보이며,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도자나 금속공예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문양이 이슬람 문화권에 전해진 청화백자뿐 아니라 그 지역의 금속공예품에도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이 문양을 통해서 몽고의 서방경략 이후 동서문화의 교류 또는 미술의 상호 연관성 내지 영향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漢代 張騫의 서역 여행 이후 陸路와 海路를 통하여 이루어진 동서무역의 교류에서 도자기는 중요한 무역 상품이었다. 唐三彩를 포함한 宋·元代의 도자 파편은 멀리 지중해지역이나, 이집트의 푸스탓트,¹ 이라크의 사마라,² 오만의 살랄라 등지에서 출토되었다.³ 특히 13세기 중엽 몽고가 아랍지역을 정복하고 이슬람 문화권과의 활발한 문물교류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두 지역간의 문화와 미술에 끼친 상호 영향 관계에서 도자미술의 교류는 동·서의 도자사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관심의 초점인 이 능화문을 중국에서는 曲折文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능화문은 주로 12곡으로 마름모꼴의 사방의 끝이 바깥쪽으로 뾰족한 형태이고, 그 네 꼭지 사이에 안쪽으로 들어간 곡면이 들어 있어 모두 12곡능화형을 이룬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12곡은 네 꼭지가 뾰족한 것은 같으나 8곡, 16곡 또는 20곡으로 변형된 예들도 있다. 필자는 이 능화문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산조 이란의 8曲長杯와 같은 唐의 금은제 능화형접시들과 연결시켜 보았으나^{도1}, 곡선면이 완만하게 모두 안

¹ 小山富士夫, 「エジプトフォス탓ト出土の中國陶磁片について」, 『陶磁の東西交流』(出光美術館, 1984), pp.73-83; 三上次男, 「中世中國とエジプトーフス탓ト遺蹟出土の中國陶磁を中心として」, 『陶磁の東西交流』(出光美術館, 1984), pp.84-99.

² Jessica Rawson, M. Tite and M.J. Hughes, "The Export of Tang *Sancai* Wares: Some Recent Research," *Transactions of the Oriental Ceramic Society*, 1987-1988, pp.39-59.

³ 오만지역에서 발견된 중국의 도자 파편들은 아직 발표된 바 없으나, 오만의 수도 머스카트에 있는 국립박물관에는 오만의 동남부 해안지역에서 발견된 중국 도자의 파편들이 전시되어 있다.



도 1 능화형접시 도금은기, 唐, 8세기,
8.2×17.3×4.8cm,
스위스 취리히 피에르 울드리 소장



도 2 은제능화형접시, 唐, 877(?) 또는 北宋 10세기,
傳 陝西省 서안 근처 출토, 11.7×21.5×3.7cm,
런던 대영박물관

쪽으로만 굽은 형태는 이 논문에서 다루는 사방이 뾰족한 능화문과는 직접적으로 연결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현재 전하는 중국의 금은기 중에 전형적인 12曲菱花形의 은제접시가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도2}. 이 접시는 서안의 북쪽에서 나온 일괄유물 중의 하나로 唐의 877년의 연대가 있는 은기와 함께 포함되었다고 하는 보고가 있으나⁴ 양식이나 형태로 보아 박물관 측에서는 북송대 10세기의 유물로 간주하고 있다.⁵ 또한 형태나 양식으로 보아서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로 보면서 요와 연결시키는 의견도 있다.⁶ 능화형 은제 접시의 중앙에 두 마리의 앵무새가 도드라지게 타출기법으로 장식되었고 주변에는 넝쿨무늬가 둘러져 있으며 바탕은 魚子文기법으로 채워져 있는 점은 唐 금은기의 장식전통을 보여 준다. 비슷한 형태의 다른 금속기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으나 은기에 이와 같은 타출기법으로 주 문양을 표현하고 바

⁴ 後藤守一, 「大英博物館所藏の唐代金銀器」, 『考古學雜誌』 제20권 제3호(1930), pp.194-204; 齊東方, 『唐代金銀器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9), p.62. 중국학자들은 이러한 형태를 海棠形이라고 부른다; Bo. Gyllensvard, "T'ang Gold and Silver," *Bulletin of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No.29, 1957, pl.22.

⁵ Jessica Rawson, *Chinese Ornament: The Lotus and the Dragon*, London: British Museum Publications Limited, 1984, fig.83.

⁶ Margaret Medley, *Metalwork and Chinese Ceramics*, Percival David Foundation of Chinese Art, SOAS, University of London, 1972, p.9.

탕을 어저문기법으로 채워 넣는 것은 唐 금은기의 특징으로 북방 遼 시대의 금은기나 송대의 공예품에서도 발견되어 당의 수공업기술의 전통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역사적으로도 遼가 흥기하는 10세기 초에는 수십만의 漢族 장인들이 요나라에 잡혀가거나 투항하여 수공업기술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⁷ 현존하는 예로 보아서는 이 금속접시를 사산조 이란기의 8曲菱花形 銀器나 이를 모방한 당의 金銀器에서 곡면의 사방이 뾰족한 12곡능화형의 직접적인 원형을 찾아보려는 노력은 무리인 것 같으며, 그 시원은 오히려 중국의 북방 요, 또는 요와 가까웠던 북송 그리고 金의 지역에서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요대의 삼채나 금대의 철화도자에서 비슷한 예들이 발견되며, 여러 가지 식물 또는 동물문의 畵窓으로도 다양하게 응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고려에서도 12세기를 넘지 않는 순청자나 은입사 금속기에 이 능화문 장식이 보이고 있는 사실이 주목되며 그 유래를 중국과 연관시킨다면 역시 고려 초에는 요, 금, 그리고 북송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 특히 정치문화적으로 교류가 잦았던 요와의 연관성이 깊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된다. 중국의 도자 중에서 이 문양이 남송시대의 공예품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고 그 전통은 북방 몽고의 원대로 이어져서 아랍 문화권으로 전파되었던 것 역시 중국의 북방 문화권에서 유행했던 문양임을 뒷받침한다.

능화문양의 원류나 그 형태의 특별한 상징성을 확실히 밝히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그 의미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무의미한지도 모른다. 이슬람 미술사의 대학자인 올레그 그라바(Oleg Grabar)는 문양에 대한 정의에서 문양은 궁극적으로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그 표현에 반드시 주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 기원과 의미의 상징성을 찾는 노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바도 있다.⁸ 그럼에도 문양의 기원과 형태의 변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역시 미술사연구의 방법과 해석의 한 과정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문양의 발전과 동서교류에서 唐草文이나 連珠文이 멀리는 그리스에서부터 또는 서아시아의 사산조 이란의 미술에서 시작하여 실크로드를 따라 서역의 궁전이나 무덤벽화 또는 석굴벽화의 장식문으로 나타나고, 또 도자기, 금속기, 직물 문양 등을 통해 고대 중국, 한국 그

⁷ 張國慶, 「契丹族文化對漢族影向芻論」, 『北方文物』(1997년 4기), pp.44-53; 金渭顯, 「契丹對宋遼金人投歸的受容策」, 『史學志』 6(1982), pp.514-517.

⁸ Oleg Grabar, *The Mediation of Ornament*, Bollingen Series XXXV · 38,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37.

리고 일본으로 전해졌던 것과 같이, 이 菱花文도 육로나 해로를 통해 이슬람 문화권과 동아시아 미술을 연결시켜 주는 국제적인 문양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II. 遼·北宋·金 미술에 보이는 능화문

1. 도자의 능화문

중국 공예품에서 타원형 능화문이 가장 많이 보이는 예는 도자기이며, 이 문양이 그려진 가장 이른 예들은 遼나 金の 三彩, 鐵彩의 도자에서 발견된다. 요대의 삼채도자 중에 12곡은 아니나 8곡능화문으로 가장 이른 예로는 遼寧省博物館을 비롯하여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등 여러 곳에 전해지고 있는 11세기 후반의 능화형 三彩印花牡丹長盤들이다^{3,9} 그리고 요대의 삼채도자 중에는 능화문의 반쪽 형태인 如意頭文형의¹⁰ 벼루가 여럿 있는데 이 중에 내몽고 박물관에 있는 삼채벼루에는 거란문자의 墨書가 있다고 한다.¹¹ 이와 같이 여러 곡절의 여의두문이 특히 요대에 유행하였던 모양으로 최근 알려진 요대 陳國공주묘(1018년)에서 출토된 도금된 銀冠이나 銀枕面도 여의두 형태로 되어 있다.¹²

본격적인 능화문이 나타나는 삼채도자 중에는 河南省 濟源縣에서 1976년에 출토된 三彩枕 중에 高士聽琴圖가 능화문의 畫窓 속에 표현된 예가 있다^{도4,13} 이 유물을 北宋시대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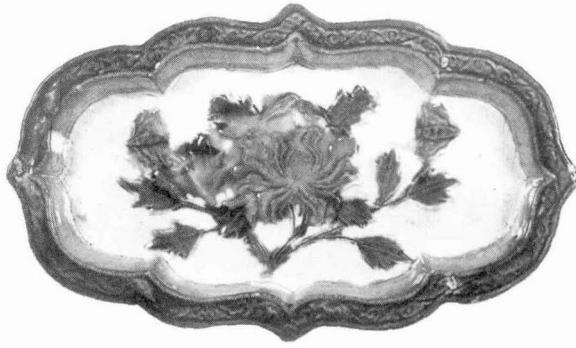
⁹ 中國歷史博物館·內蒙古自治區文化廳 編輯, 『契丹王朝—內蒙古遼代文物精華』(中國蔣學出版社, 2002), p.297의 도판. 이외에도 三彩印花蝶文長盤(安宅 coll.) 다양한 꽃문양의 접시가 전한다. 『世界陶磁全集 13 遼·金·元』(小學館, 1981), p.8.

¹⁰ 원래 如意란 維摩詰經의 維摩詰·文殊 대담에서 文殊菩薩이 손에 들었던 持物로 이 여의의 끝부분 형태를 따서 여의두라 한다. 여의두 형태는 둥근 곡면이 세 개 있으며, 일본의 범룡사에 있는 예가 그 중 이른 시대에 속하는데 이와 비슷한 문양이 도자기의 장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유사한 문양을 일반적으로 여의두문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곡면이 여러 개로 늘어나서 더 장식적으로 보이는 여의두문이 된 시대에 유행하였다. 주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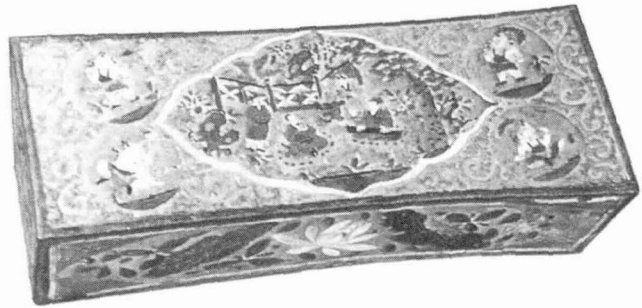
¹¹ Adam T. Kessler, *Empires Beyond the Great Wall: The Heritage of Genghis Khan*, Natural Museum of Los Angeles County, 1993, p.102 fig.64 설명문; 中國歷史博物館·內蒙古自治區文化廳 編輯, 앞의 도록, pp.302-307의 도판.

¹² 中國歷史博物館·內蒙古自治區文化廳 編輯, 앞의 도록, pp.36-37, pp.40-41, pp.45의 도판;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哲里木盟博物館, 『遼陳國公主墓』(文物出版社, 1993), 彩版 X, 1, 2; 도판 XVIII, 3; 도 23, 42.

¹³ 衛平, 「兩件宋三彩枕」, 『文物』(1981년 제1기), pp.81-82; 吳詩池, 「略述中國枕」(下), 『中國文物世界』 159(1998, 11), 도판 60.



도3 《三彩印花牡丹文八曲長盤》, 遼,
11세기 후반, 遼寧省博物館



도4 《高士聽琴圖三彩枕》,
北宋(遼), 河南省濟源縣 출토,
23×63×16cm, 河南省博物館

기로 보고 있으나, 삼채도자의 제작지는 唐三彩 전통을 계승했던 요나라였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요는 중국 북방의 넓은 지역을 통치하였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북송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다. 요의 동쪽, 송의 서북방에 있는 西夏(1032-1227)와 더불어 여진의 금(1115-1234)이 등장한 후에도 이 북방세력은 송을 압박하는 한편, 서역과 서아시아를 이어주는 문화교류의 실세로서 크게 활동하였다.

옛 西夏(1032-1227)의 땅이었던 서북 오르도스 지역 寧河의 伊金霍洛旗에서 발견된 褐釉彩의 병에는 陽刻의 12곡 능화문양이 표현되었다. 문양의 형태나 흑갈색유 의 박지기법으로 보아 북송의 磁州窯계의 도자로 약간 투박한 표현방식에서 지방 도자의 특징을 보여 준다도¹⁴. 또한 감숙성 武威의 탑 출토품에도 비슷한 자주요 계통의 능화문도자가 보이는데, 그 중에는 서하의 光定 4년(1214)의 黑書가 있는 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문양이 서하에서 유행했음을 알려 준다.¹⁵

¹⁴ Adam T. Kessler, 앞의 책, fig.82.



도 5 <褐釉彩陽刻花瓶>,
西夏, 12-13세기,
寧河 伊金霍洛旗 출토

河北省 觀臺는 북송 磁州窯 도자 제작의 중심지로 특히 북송 말에서 금대에 가장 활발히 제작하였다. 磁州窯 도자 중에는 화분이나 병의 표면에 黑褐釉의 양각 능화문이 새겨져 있고 그 속에 초화문 장식을 담은 예들이 보고되었는데,¹⁶ 앞서 본 서하의 흑유채 병과 유사하다. 또한 금시대의 자주요 鐵畫도자 중에는 陶枕이 다량으로 전하는데 대부분 鐵繪로 표현한 능화문을 양쪽으로 길게 벌려서 그 중간 공간에 산수인 물화를 그려 넣은 畫窓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張家造, 王家造, 또는 李家造라는 명문을 넣어서 제작한 家門의 성씨를 밝힌 경우도 있다.¹⁷ 이와 같이 도자기에 능화문으로 장식하거나 이와 연관된 여의두문 형태를 응용한 예가 남송시대의 도자 중에서는 발견되었다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원대 이전에 이미 요, 서하, 금의 중국 북방지역에서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2. 金代 磚築墓의 벽돌문

능화문은 금시대 전축묘의 벽돌문양에도 나타난다. 河南省 武陟縣의 금대 묘실의 내부 벽을 쌓았던 벽돌에는 인물이나 동물 또는 식물 등의 문양을 얇은 부조로 장식한 것이 있는데, 이를 雕磚이라 부른다. 그 중에는 능화문이 사슴이나 모란문을 표현하는 화창으로 사용된 예가 많다. 이 조전을 사용한 금대의 묘에서 거란의 문자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역시 이 문양이 중국의 북방문화권에서 유행하였음을 뒷받침한다.¹⁸ 산서성에 있는 금시대의 묘에서도 벽돌로 축조된 묘들이 많으며, 묘실의 벽돌면에 12곡능화형 화창을 조각하고 그

¹⁵ 韓小忙·孫昌盛·陳悅新, 『西夏美術史』(文物出版社, 2001), p.200, pp.215-218, 도 57(p.204), 63(p.217), 彩版 108, 110, 114.

¹⁶ 北京大學考古學系 外, 『觀臺磁州窯址』(文物出版社, 1997), 도 139, 152, 154, 156, 도판 88(2).

¹⁷ 吳詩池, 『略述中國枕』(下), 『中國文物世界』, pp.87-88, 도 69-70, 71.

¹⁸ 河南省博物館, 『河南武陟縣小董金代雕磚墓』, 『文物』(1979. 2), pp.74-78.



도 6 <능화문 속의 동식물문 畫塼 拓本>, 金, 13세기, 山西長治李村溝壁畫墓

속에 화려한 동물과 식물문을 낫은 부조로 조각하여 장식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도6.¹⁹

3. 직물의 여의두문과 운견문

菱花文의 반쪽 형상에 가까운 문양으로 如意頭文이 있다. 이 如意頭는 원래 불교와 관련된 문양으로 불교의식이나 보살의 지물로 사용되는 길다란 如意的 끝에 붙어 있는 장식으로서 9세기 중엽 唐의 法門寺탑 地宮에서 나온 여의두의 모습이 그 전형적인 형태이다.²⁰ 원래 여의두문은 간단히 세 번의 둥근 曲折을 가진 형태였으나, 문양의 조합이나 발달과정에서 차차 여러 曲折을 가진 곡선적인 菱花의 반쪽 형태로 변형되어 제작된 모습을 앞서 언급한 요의 삼채 베투에서 보았다. 그리고 이 여의두문은 중국이나 한국 도자기의 어깨나 밑부분의 가장자리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데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이 역시 관습적으로 여의두문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원시대 이후의 청화백자에는 12곡능화문 같이 조합되어 장식문으로 크게 유행하였다.

¹⁹ 王秀生, 「山西長治李村溝壁畫墓清理」, 『考古』(1965년 제7기), pp.352-356, 도 4; Jan Wirgin, "Sung Ceramic Designs," *Bulletin of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No.42 (Stockholm, 1970), fig. 39b 1-4; 臨夏回族自治州博物館, 「甘肅臨夏金代雕磚墓」, 『文物』(1994년 제12기), pp.46-53.

²⁰ 法門寺博物館編, 『法門寺』(陝西 旅遊出版社, 1994), p.153의 도판.



도 7 <동물문과 운견문이 있는 비단직물>.
西域 출토, 56×23.5cm, 미국
개인 소장(When Silk was Gold,
p.80, fig.18)

여의두형 문양이 사방으로 연결되게 배치되어 복식을 어깨 위에 걸쳤을 때 몸의 앞과 뒤 그리고 두 어깨 위에 곡절된 문양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雲肩文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의 형태는 역시 여의두문에서 발달된 것이다. 이 雲肩文형식의 복식은 당이나 요에서 유행했으며 매우 장식적이고 화려한 효과를 준다. 이 雲肩文 복식은 불교조각에도 보이는데, 산서성에 있는 唐代의 南禪寺(782)와 佛光寺(857)의 보살상과 사천왕의 복식과 五代 중국 북방에 위치한 北漢의 鎮國寺(963) 萬佛殿의 협시좌상의 복식에서 보이고²¹ 또 요대의 대표적인 불상인 大同 하화엄사 보살상에도 나타난다.²² 복식 위에 운견문의 덧옷을 걸쳐 입는 것은 북방 민족들의 의상이었다고 하며, 이 문양을 사방으로 펼쳤을 때의 형상은 우주의 상징으로 인식되었고 이 옷을 입는 사람은 우주의 하늘 위로 솟아오른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고 한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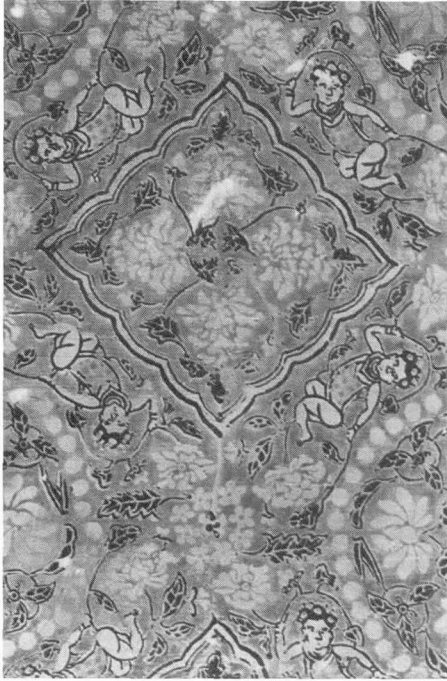
雲肩이 일반 복식에 유행하는 것은 금, 원대 이후로 본다. 서역지역에서 발견된 비단직물들 중에는 용·구름·새들로 엮어진 문양이 운견문의 장식으로 엮어진 예들이 있으며, 이러한 직물들은 동서무역 교류의 중요한 품목으로 서역의 위구르족이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활발하게 유통되었다고 한다.²⁴ 중국의 비단은 동서무역의 주요 품목이었으며, 동부 이란지역에서 출토된 직물 중에 11세기에서 13세기 중엽에 걸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려한 비단의 파편 중에 운견문이

²¹ 中國佛教文化研究所·山西省文物局編, 『山西佛教彩塑』(中國佛教協會·香港寶蓮禪寺, 1991), 도판 2-4.

²² 앞의 책, 도판 6-8.

²³ Schuyler Camman, "Cloud Collar Motif," *Art Bulletin*, 1951, pp.1-9. 이러한 해석을 증명하기는 어려우나 이 문양으로 장식한 복식은 원제국 이전의 몽고족들도 입었으며, 그 상징성은 티베트 불교의 라마승들의 복식으로 이어지고 四方개념이 중요시되는 만다라 형상에도 남아 있다고 한다.

²⁴ Watt, James C.Y. and Anne E. Wardwell, *When Silk was Gold Central Asian and Chinese Textiles*,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7.



도 8 <능화문이 있는印花絹>, 西夏, 12-13세기,
寧夏賀蘭縣 拜寺口雙塔 출토

발견된다^{도7.25} 중국적이면서도 복잡한 배치의 동물과 넝쿨무늬로 장식된 운견문 복식은 위구르족이 활약하였던 서역의 동부와 북부이란의 쿠라잔, 헤라트 등지로 흘러간 중국의 직물이었고 북방의 요나 금 그리고 몽고와의 교류와 연결되어 유행한 문양인 것을 알려 준다.

운견문이 있는 비단은 교역문물로 멀리 서역과 서아시아 지방으로 연결되었고 여러 곡절로 꺾인 두 운견문이 합쳐지면 능화문양이 형성되는 것은 이 능화문이 중국 북방에서 형성되어 유행할 수 있었던 충분한 배경을 성립시킨다.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유물 중에 서하지역 寧夏賀蘭縣 拜寺의 口雙塔에서 나온 비단이 있다. 비단 위에 장식된 능화문은 타원형은 아니지만 정방형에 가까운 20곡 능화문 속에 모란문이 배치되었고 가장자리에 동자들이 초화문과 어울려 표현된 것은 고려자기의 문양을 연상시킨다^{도8.26} 이와 같이 독립

된 능화문이 서하의 직물에도 보이는 것으로 몽고가 서쪽으로 진출하기 전까지 중국 서북부에 위치하면서 동서를 잇는 활발한 교역에 참여하였던 서하 역시 이 능화문 발달과 유행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된다.

12곡능화문의 반쪽 형태인 여러 곡의 여의두 문양이 언제, 어디에서 중국 도자에 등장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의두문의 양쪽 부분을 합친 12곡능화문의 기원과 형성에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요대의 삼채도자와 같은 유물에 여의두문이 보이는 것은 당 문화의 전통을 이어

²⁵ 앞의 책, figs.12, 26-28; Marjorie Williams, "Dragons, Porcelains and Demons," *Orientalisms*, Vol.17 (Aug, 1986), p.27.

²⁶ 韓小忙·孫昌盛·陳悅新, 앞의 책, pp.234-235, 彩版 121. 이 세부 도판의 원래 비단의 모습이 寧夏回族自治區 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賀蘭縣文化局拜, 「寧夏賀蘭縣拜寺口雙塔勘測維修簡報」, 『文物』(1991년 제8기), pp.14-26의 도27에 흑백으로 있으나 불분명하여 잘 보이지 않는다.

주면서 또한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중국의 북방문화에 속하는 거란의 요에서 이 문양을 선호한 것으로 생각되며 서하와 금에서는 여의두문이 합쳐진 본격적인 12곡능화가 유행한 것을 알았다. 그리고 원대에 제작된 청화백자에서는 12곡능화문과 여러 곡의 여의두문이 조합되어 화려한 장식문양의 화창으로 널리 유행한 것으로 보아서 두 문양의 발달과 조합은 역시 중국의 북방지역에서 이루어졌고 몽고의 팽창과 서방경락을 계기로 널리 퍼지게 되었을 것이다.

III. 고려 공예품에 보이는 능화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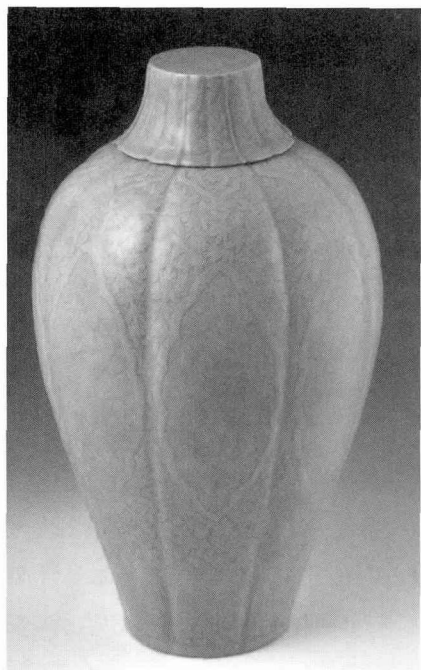
1. 靑磁

고려청자에도 음각 또는 상감의 기법을 이용하여 능화문이 나타난다. 이 능화문은 중국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畵窓의 역할을 하여 그 속에 동물 또는 식물문의 장식으로 채워졌다. 고려시대의 12세기로 볼 수 있는 순청자에 이 능화문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보다 약간 이른 시기에 이미 중국에서 특히 서하, 북송 그리고 금시대에 이 문양이 유행했던 것과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²⁷

익산의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청자베개에는 길다란 능화문 화창에 연화문이 음각으로 표현되어 있다^{도9}.²⁸ 유약의 상태나 문양의 특징이 12세기 초로 볼 수 있어 능화문이 있는 청자로는 이른 예에 속한다. 또한 海東古陶磁研究所 소장품인 뚜껑이 있는 梅瓶에는 몸통이 여덟 개의 긴 골로 구분되어 있고 세로로 길게 도드라진 면 위에 길쭉한 菱花文의窓이 음각으로 표현되었고 그 속에는 각기 정교하게 낮은 양각으로 표현된 龍文을 담고 있다^{도10}. 이 청자 매병은 유색이나 능화창 이외의 전면 바탕에 새겨진 모란문양의 뛰어난 표현기법으로 보아 청자 생산의 전성기였던 12세기의 예로 생각된다. 순청자 참외형주전자에도 이와 같이 8개의 골을 형성하여 능화문을 음각한 예가 있다.²⁹ 능화문은 또한 투각으로도 표현되었는

²⁷ 만일 대영박물관의 12곡능화형 은제접시^{도2}와 하남성박물관의 삼채베개^{도4}가 요대의 유물이라면 능화문은 요대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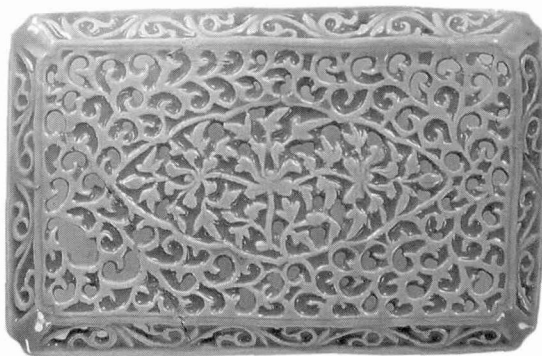
²⁸ 전라북도 익산지구 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 『미륵사지유물전시관』, 1997, p.69의 도판.



도 10 <靑磁八曲梅瓶>, 高麗, 12세기,
海東古陶磁研究所



도 9 <靑磁陰刻蓮花折枝文枕>, 高麗, 12세기 초,
길이 28cm, 미륵사지 출토, 익산 미륵사지 자료실



도 11 <靑磁透刻唐草文盒>, 高麗, 12세기,
14.8×21.8cm, 東京國立博物館

데, 잘 알려진 예로는 일본 東京國立博物館 소장 <靑磁透刻唐草文盒>의 뚜껑에 있는 능화문으로 그 안에는 역시 투각의 모란문을 담고 있다¹¹⁾.

청자의 상감기법이 크게 유행하기 전 단계에 등장하였다고 생각되는 堆花기법으로 표현된 능화문도 있다. 2001년 《세계도자문명전》에 소개되었던 김낙준 씨의 소장품 중에 <靑磁堆花菱花如意頭文梅瓶>은 병의 몸통에 네 개의 능화문이 흑백 두 줄의 白土와 赭土로 대담하게 그려져 있고 그 속에는 자토로 둘러진 백색의 草花文이 표현되었다¹²⁾.³⁰ 특히 어깨

²⁹ 국립중앙박물관, 『高麗靑瓷名品』(1989), 도판 32, 海東古陶磁研究所에도 비슷한 참의형주전자에 능화문을 새긴 예가 있다.



도 12
 〈靑磁堆花菱花
 如意頭文梅瓶〉, 高麗,
 12세기, 높이 32cm,
 김낙준 소장



도 13
 〈靑磁象嵌雲鶴文
 童子竹文梅瓶〉, 高麗,
 13세기, 높이 33.5cm,
 시카고 미술관

부분에 둘러진 여의두문은 능화문과 어울려서 비슷한 문양의 구성이 원대의 청화백자에 등장하기 전인 이미 12세기의 고려청자에서 보인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또한 이 매병에 보이는 여의두문은 흔히 청자의 어깨의 목둘레에 둘러지는 여의두³¹와는 다르게 복잡하고 화려한 형태로 오히려 당말 요대의 복식에 보이는 운견문 형태와 더 가까운 점이 지적된다.

純靑磁뿐만 아니라 象嵌靑磁에도 이 능화문 장식이 여러 기형에 보이는데, 바로 앞에 관찰한 퇴화문 장식과 유사한 형태의 능화문이 운학문 매병의 상감기법으로도 나타난다. 시카고 박물관에 있는 〈靑磁象嵌雲鶴文童子竹文梅瓶〉에는³² 능화창 속에 대나무와 동자가 표현된 매우 회화적인 장식을 보여 준다(도13).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白瓷象嵌牡丹文梅瓶〉은 백자에 청자태토를 넣어 몸체 여섯 곳에 능화창을 만든 후 그 속에는 모란, 갈대, 포류, 수금문 등을 흑상감 혹은 백상감으로 장식한 희귀한 예로 능화문의 유행을 알려준다.³³ 역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청자상감베개에는 능화창 속에 모란문이 장식되었고 베개의 양쪽

30 세계도자엑스포 심포지엄 발표요지문, 『세계도자문명전/동양』(경기도, 2001), 도판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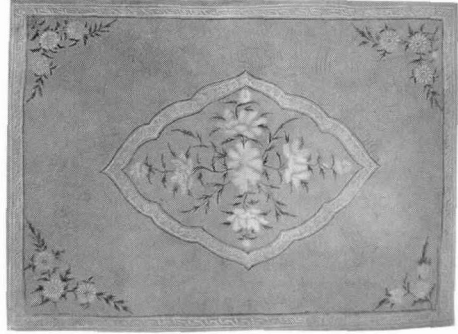
31 崔淳雨 編著, 『國寶 3 靑磁-土器』(예경산업사, 1983), 도판 24, 26-41, 47-49.

32 국제문화교류재단, 『해외소장 한국문화재』 5(미국소장 ②), 1996), p.257 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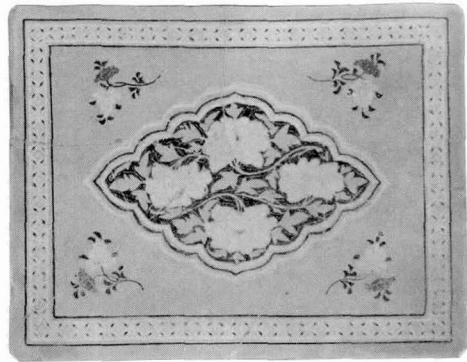
33 崔淳雨 編著, 『國寶 3 靑磁-土器』, 도판 106.



도 14 〈靑磁象嵌雙鳳文箱〉 뒷면, 高麗, 12-13세기,
15×22×7.8cm,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도 15 〈靑磁象嵌牡丹菊花文四角陶板〉, 高麗, 13세기,
22.5×30.6×0.3cm, 선문대학교 박물관



도 16 〈靑磁象嵌牡丹文陶板〉, 高麗, 12세기 중엽,
30.5×40.3cm,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끝에 있는 구멍도 능화의 테두리로 두르고 있다.³⁴ 능화문 속의 장식들은 더욱 복잡하고 화려해졌으며, 일본 大阪의 동양도자미술관 소장 〈靑磁象嵌雙鳳文箱〉의 예처럼 능화 속에 圓形文이 들어가서 한 쌍의 봉황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³⁵. 청자에 상감을 한 기법이 12세기 중엽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한다면, 능화문의 표현이 고려시대의 12세기 후반에는 유행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³⁴ 위의 책, 도판 84: 국립중앙박물관, 『高麗靑瓷名品特別展』(1989), 도판 190. 이 베개의 양 끝에 있는 능화문은 마름모 형태가 아니고 정방형에 가까우며, 이미 이와 유사한 형태가 요나라의 비단 문양에도 나타난 바 있다. 도판 8과 주 26 참조.

³⁵ 林屋晴杉, 『安宅コレクション 東洋陶磁名品圖録 高麗』(日本經濟新聞社, 1980), 도판 26: *The Radiance of Jade and the Clarity of Water: Korean Ceramics from the Ataka Collection*,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New York: Hudson Hills Press, 1991), pl.20.

상감청자에서 능화문양은 陶板의 장식으로도 많이 등장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잘 알려진 상감모란문 도판은 그 중에도 매우 장식적이고 화려한 예로 꼽을 수 있다.³⁶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하여 소장하게 된 전라북도 扶安 柳川리 가마터의 陶板들은 대부분 12세기 말에서 13세기의 예들로, 복원이 가능한 陶板 17점을 관찰해 보면, 대부분 국화, 모란, 운학, 용문을 상감기법으로 표현하고 배경은 波文으로 채워져 있다.³⁷ 이외에도 鮮文大學校 박물관에도 비슷한 도판이 있으며³⁸ 일본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의 安宅 소장품 중에도 두 점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인 〈靑磁象嵌牡丹文陶板〉은 능화의 한 변마다 곡형이 더 있어 모두 16곡으로 표현되었고 능화 속의 모란문 장식은 배경을 검게 역상감한 기법이 특기할 만하다³⁹. 이 도판들은 건축물 내부의 벽을 장식하는 內粧用으로 사용하였다고 생각되며, 도판을 서로 연결하였을 때 연속적이고 화려한 벽 문양을 이루었음을 상상할 수 있다.⁴⁰ 특히 중국 금대에 능화문이 벽돌이기는 하지만 묘실의 벽면을 장식했던 것보다 좋은 비교가 된다. 이제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이 능화문이 고려의 순청자에서 상감청자로도 이어지면서 장식문양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은 이 문양의 유행이 중국의 元代보다는 더 이르게 고려의 도자에서 크게 유행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다.

2. 金屬淨瓶

고려자기의 기형이나 문양과 서로 유사한 공예품 중에는 금속기가 있으며 그 중에도 정병은 그 형태나 문양에서 상호 관련이 깊다. 청자에 많이 보이는 12곡능화문이 많지는 않으나 역시 고려의 은입사 정병에도 보인다. 영국 런던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 소장의 정병에는 銀入絲기법으로 윤곽을 한 능화문 속에 버드나무와 동자가 표현되어 있다⁴¹. 이 문양은 앞서 보았던 시카고 박물관에 있는 상감청자의 능화문 속에 대나무와 동자가 있는 문양과도 비교되는 한편, 능화와 정병의 어깨부분에 여의두

36 국립중앙박물관, 『高麗靑瓷名品』, 도판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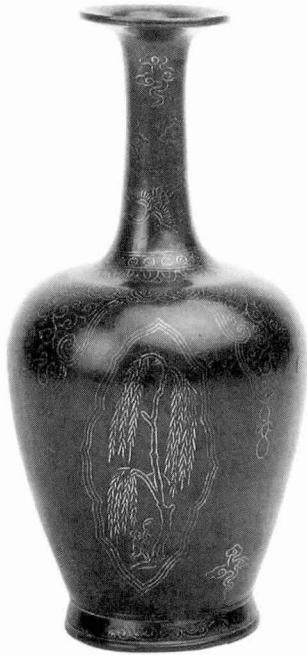
37 弓民純, 「高麗靑磁陶板」, 『考古美術』 145(1980. 3), pp.24-36.

38 『鮮文大學校博物館 名品圖錄 I 陶瓷器篇』(선문대학교출판부, 1998), 도판 82.

39 林屋晴杉, 『安宅コレクション 東洋陶磁名品圖錄 高麗』, 도판 27.

40 조정현, 「한국의 건축도예」, 『세계도자엑스포 심포지엄(2001)』, pp.204-212.

41 Victoria and Albert Museum, *Korean Art and Design*, 1992, pl.46.



도 17 〈銀入絲菱花文淨瓶〉, 高麗, 12세기, 높이 25cm, 런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

형의 은입사 장식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이미 앞에서 관찰한 김낙준 소장의 〈청자퇴화능화여의두문매병〉의 구성과도 유사함이 보인다. 이 정병의 연대를 고려 전기인 12세기경으로 본다면 순청자의 능화문 유행과 상감기법 사용의 초기시기와도 같은 시대의 작품일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고려의 공예장인들이 문양과 기형에서 서로의 자료들을 공유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더욱 뒷받침한다.

3. 칠기 및 기타

능화문의 화창 속에 표현되는 문양은 고려 전반기의 청자나 정병에서는 대부분 국화, 모란 등 초화문인 경우가 많았으나 시대가 내려갈수록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공작, 봉황 또는 용과 같이 더 중국적이고 상서로운 문양의 창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도자기 외에 다른 종류의 공예품에서 발견된다.

특히 경전을 넣는 고려 經箱에는 나전으로 장식된 예가 많이 알려져 있으나 칠기로 된 경상의 표면을 긁거나 새겨서 금니로 칠하거나 상감하는 鎏金기법을 사용하여 능화문을 표현한 예들도 있다. 일본의 京都府大崎町 寶積寺에 있는 〈黑漆雙鸞雙鳳孔雀花卉文鎏金經箱〉에는 상자의 윗면과 옆면에 12곡능화문이 있고, 윗면 화창에는 봉황 두 마리가, 옆면에는 공작새 두 마리가 구름 사이로 여유 있게 날고 있다⁴². 이 상자에는 至元 31년(1294)명이 있는 紺紙銀字寫經을 넣었는데 경전 말미의 발원자 이름에서 고려의 사경임을 알 수 있었다.⁴² 그리고 이 사경을 넣었던 경상 역시 경전의 제작시기와 비슷한 시기의 고려제로 추정되고 있다.⁴³ 그리고 漆經箱에 鎏金(중국에서는 戩金이라 함)技法으로 장식한 예는 중국 원대의 예가 여럿 있으나 같

⁴² 『特別展 高麗佛畫』(大和文華館, 1978), pp.8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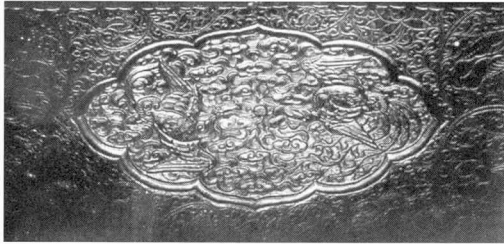
⁴³ 林進, 「高麗經箱についての二、三の問題—特に高麗粧飾經との關係について」, 『佛教藝術』 138, pp.50-52. 이 논문에서는 경상의 연대를 14세기 전반으로 추정하였으나, 2004년 5월 초 京都國立博物館의 칠기 전시실에서 필자가 실견하였으며 그 설명문에는 경전의 연대와 같은 시기의 고려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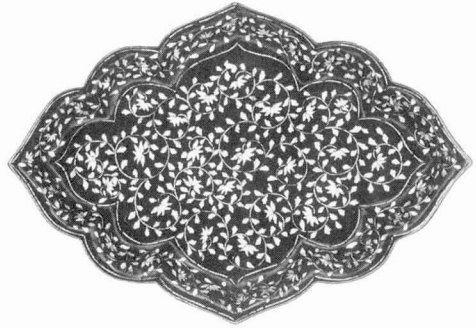
도 18 <黑漆雙鸞雙鳳孔雀花卉文鍍金經箱>, 高麗,
13세기 말-14세기, 京都府大崎町 寶積寺



도 19 圓覺寺 <地藏菩薩圖> 부분, 高麗,
14세기, 日本 神奈川縣 鎌倉市 圓覺寺



도 20 <金銅佛龕 천장의 쌍봉황문>, 高麗,
14세기, 전라남도 求禮 泉隱寺



도 21 <능화형 칠기쟁반>, 高麗 또는 朝鮮 초,
14-15세기, 44×30.4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은 기법으로 장식된 고려의 經箱으로는 현존하는 유일한 예로 알려져 있다. 고려 불화 중에는 금색으로 표현된 능화문양이 있는 경상이 표현되어 있는데, 일본 神奈川縣 鎌倉市 圓覺寺에 있는 고려 불화 <地藏菩薩圖>에 무독귀왕이 들고 있는 상자를 자세히 보면 뚜껑 부분과 옆면에 능화문이 그려져 있고 금색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칠기에 鍍金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⁴⁴.

능화문 속에 용이나 봉황이 나타나는 경우는 14세기로 고려의 殿閣形 금동불감의 내부 천장에도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금동불감 내부 벽에 표현된 불상은 고려 말 14세기의 불상양식을 보여 주는데 도드라진 타출기법으로 표현되었으며 천장에는 능화문 속에

44 菊竹淳一·鄭于澤, 『高麗時代の佛畫』(시공사, 1997), 도판 109.

황룡이 장식되었다.⁴⁵ 이 불감과 거의 동일한 구조이면서 크기가 약간 큰 금동불감이 전라남도 求禮의 泉隱寺에 있는데 이 불감에는 천장에 능화문이 있으며 봉황 두 마리가 표현되어 있다²⁰. 이로 보아 이제 이 문양은 단순한 동식물의 장식적인 단계를 넘어서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龍鳳의 瑞文을 담은 화창으로 자리잡아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에는 나전칠기가 많이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도 능화형이 보인다. 특히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어빙 소장품 중에는 고려 말과 조선 초로 생각되는 능화형 쟁반이 있으며²¹, 또 긴 다리가 있는 책상의 윗면 장식에서도 보인다.⁴⁶ 쟁반의 경우 능화의 형태가 약간 통통한 것이 책상의 윗면에 표현된 길죽한 능화형과는 약간 다르며 그 속에 표현된 꽃의 형태도 쟁반에는 모란당초문이나 책상의 경우 꽃잎이 3쪽이 있는 넝쿨형이다. 칠기쟁반의 능화형은 고려청자와 원의 청화백자에 보이는 형태와 유사하고 능화의 안과 밖을 채우는 당초문 역시 당시 나전칠기에 보이는 고려적인 전통을 따르고 있다.

청자나 나전칠기의 문양으로 고려시대에 이 능화형이 유행하는 것과 더불어 금속장식판으로 木棺에 부착하였던 경우도 있는데, 그 중에 天人棺裝飾 능형판이 전해지며 그 속에는 아름다운 비천의 형상이 먹선과 채색으로 그려져 있다.⁴⁷ 또 다른 관장식의 일부는 24곡 능형판 속에 여의두문으로 둘러싸인 원형장식이 있고 그 속에는 봉황새가 표현되었으며 그 주변에는 연속적인 당초문 줄기가 투각되었다.⁴⁸ 고려에는 이 능화형문양이 하나의 문양으로 널리 유행했던 듯, 조그만 칼집에도 타출기법으로 표현되었다. 그 중에는 국립박물관과 전주국립박물관에 있는 銀製鍍金打出花鳥文粧刀집에는 장도의 형태에 맞게 능화의 뾰족한 부분을 생략하면서 그 속에는 도안화된 雙鳥文이 보인다.⁴⁹

고려시대 청자뿐만 아니라 기타 공예품의 새로운 장식문양으로 유행하였던 고려의 능화형문양과 비교되는 중국의 예들은 남송 이전의 중국 북방지역 나라의 공예품들과의 연관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 능화문의 문양이 요, 서하, 금대의 도자나 금속기, 직물 그리고 雕塼墓의 건축장식으로도 응용된 것을 참조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영향은 고려의 공예품에도 나

45 호암갤러리, 『大高麗國寶展』(1995), 도판 170.

46 James C. Watt and Barbara Brennen Ford, *East Asian Lacquer: The Florence and Herbert Irving Collectio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1, 도판 152, 153.

47 호암갤러리, 『大高麗國寶展』(1995), 도판 279-280.

48 앞의 도록, 도판 278.

49 앞의 도록, 도판 234-235.

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북방의 군림자로 등장하는 몽고족의 元代 미술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몽고가 정복한 이슬람 문화권의 공예미술과의 연관성이 예견된다.

IV. 元·明代 청화백자와 칠기의 능화문

원대의 청화백자 중에 능화문장식이 크게 유행하는 대표적인 예들이 이스탄불의 토크 피 궁전에 소장된 청화백자들 중에서 보인다는 내용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 도자들은 중국에서 수입하였거나 선물로 받은 것으로 龍泉窯의 청자나 景德鎮의 청화백자들이 주류를 이루며,⁵⁰ 특히 청화백자는 다양하고 화려한 무늬로 장식되었다. 그 중에는 이슬람 지역 특유의 그릇 형태를 따르거나 아랍문자가 쓰인 경우도 포함된다.⁵¹ 이는 13세기 전반에 몽고가 이슬람지역을 정복한 이후 더욱 활발해진 무역교류에 따른 결과이다. 특히 중국은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용하였던 코발트 안료를 수입하여 14세기부터는 청화백자를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며, 이후 중국 도자 문양 표현의 획기적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현재 정확한 연대가 있는 가장 이른 청화백자는 런던의 퍼씨발 데이비드 재단에 있는 〈靑華雲龍文雙耳瓶〉으로 목 부분에 元 至正 11年(1351)의 명문이 있다.⁵² 따라서 청화로 장식된 중국의 도자들은 일반적으로 14세기로 보고 있으므로 고려청자에 보이는 능화문의 등장은 이보다 훨씬 앞서는 것이며 문양장식의 내용도 훨씬 단순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덕진에서 화려한 문양의 청화백자가 등장하는 배경에 대해서 劉新園은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전반기에 중국의 북방지역인들이 강남으로 이주를 하였고, 특히 북방의 磁州窯系의 畫工들이 경덕진의 陶工에게 청화로 장식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었다고 추측하였는데, 이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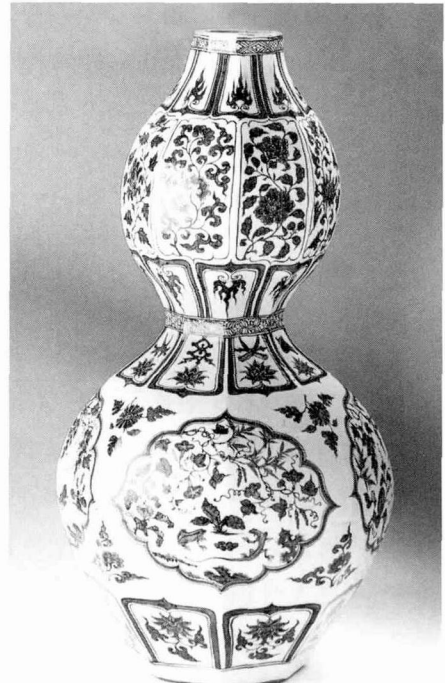
⁵⁰ John Alexander Pope, *Fourteenth-Century Blue-and White: A Group of Chinese Porcelains in the Topkapu Sarayı Musezi, Istanbul*, Washington, D.C., 1952.

⁵¹ Basil Gray, "The Export of Chinese Porcelain to the Islamic World: Some Reflections on Its Significance for Islamic Art before 1400," *Transactions of the Oriental Ceramic Society* 41(1975-1977), pp.131-162. Medley, Margaret, "Chinese Ceramics and Islamic Design," *The Westward Influence of the Chinese Arts*, ed. by William Watson, *Colloquies on Art and Archeology in Asia*, no. 3, London, 1974, pp.1-10.

⁵² 『世界陶磁全集 13 遼·金·元』, 도판 49, 50. 원대의 중국 도자에서 청화안료의 사용 연대에 대하여 참고되는 자료는 1323년의 竹筒을 포함한 신안 앞 바다에서 건진 중국도자유물 중에 청화백자가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중국에서 청화의 사용이 1351년에 가까운 14세기 전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 22 <청화백자 蓮池水禽葡萄瓜朝顔芭蕉文八角梅瓶>, 元, 14세기 후반, 높이 40.8cm, 이스탄불 토카피 박물관



도 23 <청화백자 草虫獸文八角瓢形瓶>, 元, 14세기 후반, 높이 60.6cm, 이스탄불 토카피 박물관

지역의 인구의 増減에 대한 기록과 경덕진에서 출토된 자주요 도자의 파편으로도 뒷받침된다.⁵³ 그리고 이러한 청화백자는 이슬람 문화권 상인들의 주문과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석하였다.⁵⁴ 이러한 관점은 토카피에 있는 원대의 청화백자에서 보이는 새로운 문양의 등장이나 서아시아적인 요소를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서하나 요·금대의 자주요계 도자에서 보이는 능화문이 원의 청화백자문양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스탄불의 토카피 궁전에 있는 원대의 청화백자 중에 12곡능화문이 장식된 예들은 景德鎮窯에서 제작된 14세기 중반의 도자로 그 중에 대표적인 예인 蓮池水禽葡萄瓜朝顔芭蕉

⁵³ 劉新園, 「元代窯事小考(1)」, 『陶說』 351(1982, 6), pp.22-28; 「元代窯事小考(2)」, 352(1982, 7), pp.34-42.

⁵⁴ 앞의 논문(2), pp.36-37.



도 24 〈鎗金漆經箱〉, 元, 1315년, 廣島 光明坊



도 25 〈鎗金漆經函〉, 元, 14세기,
25.3×22.3×39.8cm, 京都 大德寺

文八角梅瓶은 어깨부분의 상단과 아랫부분의 하단에 네 개씩의 여의두문과 몸체에 있는 네 방향의 12곡능화문 화창이 엇갈리게 배치되어 있다²². 상단의 여의두문 속에는 菊唐草文이 표현되었고 능화문 창에는 연못에 오리와 蓮花 등이 화려하면서도 복잡하게 그려져 있다. 화창들이 있는 사이의 공간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당초문으로 메우고 있는 것은 중국적이라기보다는 이슬람인의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능화문이 있는 또 다른 청화백자의 예는 草虫獸文八角瓢形瓶으로 하단의 몸체 부분의 사방에 능화형이 배치되고 그 속에는 나팔꽃, 대나무, 국화, 개구리, 도마뱀 등이 채워져 있다²³. 이 표형병은 위아래로 네 단의 연판문이 둘러지고 그 속에는 초화, 모란 외에 이 시대의 청화에 많이 등장하는 八寶 표현이 채워져 있다. 또한 원대의 청화백자에 표현된 능화문의 형태는 대체로 고려의 능화문보다는 가로 폭이 짧아져서 통통한 형상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원대에 이 능화형 장식이 다시 유행하는 배경에는 북방의 문화전통을 잇는 몽고인들의 취향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능화문의 유행은 원대의 도자기뿐 아니라 칠기에도 보인다. 고려의 보적사혹칠경상과 같이 鎗金기법을 이용하여 장식한 원대의 경상이 여럿 알려져 있고 그 중에 일본 廣島 淨土寺 光明坊에 있는 〈鎗金漆經箱〉은 元代 1315년에 제작하였다는 명문이 있어서 유명하다²⁴.⁵⁵ 이 경상의 표면에 있는 16곡능화문 안에는 공작새 두 마리가 도안화된 구름 속에 표현되어 있는데, 고려 보적사의 예보다는 좀더 복잡하게 화창 속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는 점은 앞서 본 구례 泉隱寺의 고려시대 금동불감의 천장에 나타난 능화문 속의 봉황문 표현과

매우 유사하다.

천은사의 불감에 보이는 능화와 봉황의 형태는 중국의 원대 칠기상자에도 유사한 예가 있다. 예를 들어 또한 일본 京都의 大德寺에도 〈鎗金漆經函〉의 옆면에 능화문 장식이 있고 그 속에 봉황새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과 한국의 불교 관계 미술품에도 이 문양이 널리 유행한 것을 알 수 있다²⁵. 능화문은 가로길이가 짧아진 형태로 당시의 14세기 청화백자에서 보이는 능화문들과도 유사하다. 이 大德寺의 경칠함의 제작연대는 14세기 전반으로 1315년의 淨土寺 鍍金漆經箱子보다는 시대가 다소 늦다고 판단된다.

이와 비슷한 예로 〈鳳凰文鎗金經箱〉이 일본의 妙蓮寺에 있는데 원의 13세기로 알려져 있다.⁵⁶ 상자의 윗면에 16곡능화문이 金泥를 嵌入한 기법으로 표현되었는데, 그 속에는 봉황 두 마리와 구름문이 있고 사방 옆에는 능화의 반쪽이 밑으로 열려 있다. 그런데 이 경상의 능화의 변이 16곡인 점은 일본 安宅 소장 靑磁象嵌牡丹文陶板이 16곡이었던 점과도 비교된다.

능화문에 용과 봉황 등의 瑞文들이 쌍으로 등장하여 유행하는 것은 원나라부터로 생각되며 이후 명·청시대에 장식문양으로 크게 유행하였다. 명의 洪武연간(1368-1397)부터 시작하여 황실 주도 하에 유포된 용문양은 봉황문과 결합되어 永樂연간(1403-1424)에서 宣德연간(1426-1435)의 공예품에서 특히 유행하였다. 그리고 선덕연간부터는 차차로 그 문양이 좀더 중국적인 취향으로 바뀌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 소장품이 있는데, 책상과 탁자 윗면에 구름 속에서 노니는 화려하고 울동적인 龍鳳文이 능화문의 화창 속에 정교하게 조각된 경우이다²⁶.⁵⁷ 이제 청화백자의 능화 속에는 요와 금 또는 원대에 흔히 보이던 화조나 연꽃무늬보다는 좀더 중국적인 용과 봉황의 문양들로 능화의 속을 채우는 변화가 보인다.

토카피 박물관의 瓢形 청화백자병에서도 보았듯이 능화문 외에도 원의 청화백자에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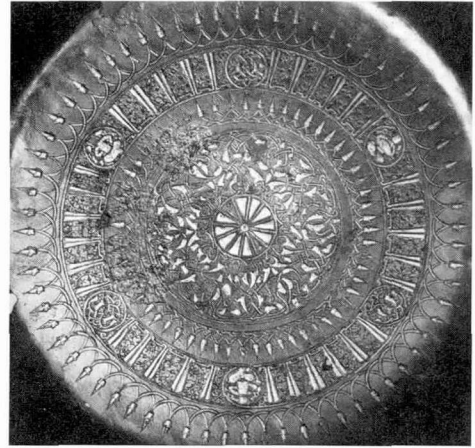
⁵⁵ 이 경함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문양의 세부와 鎗金기법에 대하여는 다음에 소개되었다. Harry M. Garner, *Ryukyu Lacquer*, Monograph series No.1, Percival David Foundation of Chinese Art, SOAS, University of London, 1972, pp.16-22, Pl.12.

⁵⁶ 이 역시 寶積寺의 經箱과 같이 2004년 5월 京都의 京都國立博物館의 칠기 전시실에서 실견한 바 있으나 글로 소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⁵⁷ Margaret Medely, "Imperial Patronage and Early Ming Porcelain," *Transactions of the Oriental Ceramic Society*, Vol.55, 1990-1991, pp.29-42. fig.5, 6.



도 26 <상감채색 책상>, 明,
宣德年間(1426-1435), 넓이 42cm,
런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



도 27 <금속대야>, 이란 동부지역,
13세기 중엽-말기, 지름 34cm, 높이 8cm,
런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

타나는 새로운 문양 중에 서아시아의 장식 문양과의 연관성을 보여 주는 요소가 여럿 있다. 특히 도자장식에 구획을 지어서 문양대를 형성하는 것이나 도자의 가장자리를 장식하는 길쭉한 연판문의 테두리 장식은 이슬람의 도자나 금속기에서 아랍 문자를 연속적으로 이어 길게 장식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해석은 이미 제시된 바 있다.⁵⁸ 이미 10세기의 전통적인 이란의 미나이 채색도기의 가장자리에도 이렇게 길쭉한 문자 장식이 보이고 13세기의 각종 금속공예품에도 나타나는데 글자는 알라신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銅器의 주변에 은으로 길쭉하게 상감하여 언뜻 보면 연판문 형상으로 보인다^{도27}. 중국의 청화백자의 길쭉한 연판문 장식은 그 형태만 차용을 하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장식문이나 八寶의 형태로 채워져서 중국적으로 응용되었으며^{도23}, 이후 명·청대 청화백자의 연판문 장식에 다양한 변화를 주면서 유행하였다. 한국에서도 고려의 상감청자나 은입사 香塢 중에도 이와 비슷한 문양이 유행하였고 조선시대의 분청과 청화백자의 문양으로도 나타난다.

⁵⁸ Basil Gray, "The Influence of Near Eastern Metalwork on Chinese Ceramics," *Transactions of the Oriental Ceramic Society*, 18(1940-41), pp.47-60. Assadullah Souren Melikian-Chirvani, *Islamic Metalwork from the Iranian World 8th-18th Centuries*, Victoria and Albert Museum Catalogue, London: Her Majesty's Stationary Office, 1982, pp.190-191.

V. 이슬람 금속기의 능화문과 중국의 영향

몽고와 서아시아지역의 역사를 더듬어 가면 몽고의 징기스칸이 서아시아지역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13세기 초로, 西遼와 부카라, 사마르칸트 등 동부이란과 접하고 있었던 나라들을 1218년과 1219년에 차례로 함락시키고 이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지역을 점령하고 몽고에 귀환한 것이 1225년이다. 그리고 1228년에는 遼의 서부에 있던 西夏를 복속시켰다. 제2차 원정은 1235년에 시작하여 이번에는 러시아와 동유럽을 점령하였으며 제3차 정벌 때는 징기스칸의 손자 훌라구가 1258년에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1260년에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함락하였다.⁵⁹ 따라서 몽고는 1271년 원제국을 세우기 이전에 이미 서역과 서아시아, 러시아 및 동부유럽과 터키지역에 이르는 방대한 영토에 그 영향을 미쳤다. 원은 이러한 서쪽의 이민족 이른바 色目人들을 우대하여서 아랍의 학자, 군인, 기능공들이 내조하여 서방의 예술과 과학기술을 전하였고 이슬람지역과는 비단, 도자 등의 문물의 교역이 육로나 해로를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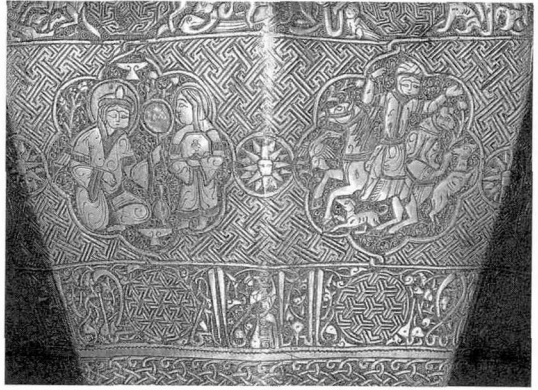
이란에는 이미 사산조시기부터 금속기에 타출, 금은상감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양이 장식되었는데, 그 중에서 능화문과 유사한 형태는 13세기 전반부터 등장한다. 특히 연대가 알려진 블라카스(Blacas) 주전자는 이라크 북부의 모술(Mosul) 공방에서 1232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인물이 있는 능화창은 타원형이라기보다는 원형에 가깝고 또 안쪽으로부터 꺾인 능화형이다^{28, 28-1}.⁶⁰ 이란 서부에서 제작된, 역시 13세기 전반의 주전자의 은상감 문양에는 사방이 밖으로 꺾인 통통한 12곡능화형 화창이 표현되어 있다²⁹.⁶¹ 이 주전자 문양의 세밀한 분석에서 전통적인 이슬람 문양과 새로운 요소들이 같이 보이고 있다고 하며, 시기는 몽고가 이 지역에 들어온 이후 20-30년이 지난 후의 제작으로 추정하고 있다.⁶² 여기

⁵⁹ 몽고는 여러 번에 걸쳐 서방을 征略하였는데 1219년에 처음으로 사마르칸트, 이란의 북부 호라즘으로 진격하여 바그다드와 동남러시아지역까지 점령하고 7년 후에 돌아왔다. 2차 원정은 오고타이왕 때로(1235-1241) 모스크바와 동부유럽까지 진출하였다. 3차 西征 때는 바그다드까지 가서 압바스 왕조를 멸망시키고(1258)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까지 진출하였다. 貝塚茂樹, 李龍範 編譯, 『中國의 歷史(中)』 中央新書(中央日報·東洋放送, 1980), pp.216-229.

⁶⁰ Rachel Ward, *Islamic Metalwork*, British Museum Press, 1993, pls.24, 59, 60.

⁶¹ Assadullah Souren Melikian-Chirvani, 앞의 책, no.75, 75 D-E(pp.169-173).

⁶² 앞의 책, p.172.



도 28, 28-1
 블라가스 주전자, 은과 황동으로 상감,
 이라크, 모술 지방, 1232년, 높이 30.4cm,
 런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



도 29 금속주전자, 이란 서부,
 13세기 전반, 높이 43.7cm,
 런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



도 30 금속접시, 이란 동북부 Khorasan,
1496년 7월-1497년 8월, 지름 18.9cm,
런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



도 31 샤나마왕의 연회도, 이란 티무르 왕조,
1444년경, 37.5×27.5cm,
클리블랜드 박물관

에서 보이는 능화형은 마치 서하와 금시대의 자주요 계통의 흑갈유 양각문양으로 나타난 능화문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서아시아의 금속기 문양은 이미 유행하고 있던 문양과 새로이 동쪽에서 전해지는 문양의 만남에서 오는 변화로 생각된다. 그리고 중국의 14세기 원의 청화백자에 나타나는 능화형은 그 이전의 중국 도자나 칠기 또는 고려의 청자문양에 보이는 능화문보다 세로길이가 짧아져서 더 통통하게 변한 것은 역시 몽고의 서아시아 침략 이후 그곳에서 나름대로 유행하고 있던 금속기의 능화문양과의 교류에서 오는 결과로 해석하고자 한다.

15세기에도 계속하여 아랍인들의 전통과 취향에 맞는 통통한 능화문양이 만들어져서 금속 촛대받침이나 쟁반 등을 장식했는데 그 형태가 연속적이고 길쭉한 부분 두 곳에서만 뾰족하게 표현되었다. 런던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에 있는 두 점의 금속기는 1496-1497년경 이란 동북부 코라잔 지역의 제작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촛대에는 양쪽이 뾰족한 12곡능화창 속에 중국적인 문양의 요소인 연꽃과 물고기를 도식적으로 표현하였다.⁶⁵ 서아시아 전통에서는 연꽃은 빛 그리고 물고기는 분수 또는 연못을 상징한다고 한다. 같은 시기의 또 다른 금속접시에 있는 세 개의 능화문 역시 양쪽 끝만 뾰족한 16곡 형태로 그 속에

는 장식적으로 변형된 연꽃문양으로 채워졌고 능화문의 주변에는 도식화된 구름문양이 있다³⁰.⁶⁴ 이 도안적인 구름문양을 중국식 구름문양으로 부르는데 이슬람 미술에서 몽고와의 교류 이후 새로 나타나는 장식문양으로 이슬람의 15-16세기 세밀화에도 중국의 청화백자의 그림과 같이 자주 나타난다³¹.⁶⁵

능화문은 14세기와 15세기 이후의 중국과 이슬람 문화권의 금속기, 도자기, 직물, 칠기, 건축물 등을 장식하는 데 널리 응용되었다. 능화문의 장식적인 효과를 주기 위하여 곡면의 수가 증가하기도 하고 기물의 형태와 주변 문양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길어지거나 넓어졌으며, 특히 이슬람 미술에서는 곡면의 양쪽만 뾰족해지는 경향이 보이기도 한다. 이 문양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보편적인 유행을 가져오게 된 배경에는 서아시아와 몽고의 元과의 교류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에 큰 세력을 누렸던 티무르 제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티무르 왕조는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융성하여 터키와 이란지역과 몽고 그리고 다시 인도의 무갈 제국을 이어 주면서 원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또 동서 문화 교류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수입하거나 사용하였던 중국의 청화백자는 앞에서 본 티무르 제국의 세밀화에도 나타나듯이 당시 도자 무역의 실상을 잘 설명해 준다.

VI. 맺음말

이상으로 중국의 북방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능화문양이 다양한 재료와 형태로 등장하여 도자, 묘실의 벽돌조각, 칠기, 금속기 등에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중국 북방 지역의 요, 서하, 금에 이르는 동서 문물의 교류와 13세기 몽고의 서방정략에 따른 이슬람 문화권과의 접촉으로 이 문양의 유행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으며, 12세기의 고려청자에도 등장하는 것 역시 중국 북방의 요, 금, 서하 및 북송과의 밀접한 교류에 의한 영향으로 보았다.

결국 14세기에 등장하는 원의 청화백자에서 능화문이 유행하기 이전에 이미 서아시아

⁶³ 앞의 책, fig.63(p.241).

⁶⁴ 앞의 책, 도판 no.110 (pp.250-252).

⁶⁵ Ernst J. Grube, *Muslim Miniature Paintings from the XIII to XIX Century*, Venezia: Neri Pozza Editore, 1962, pls.34A-B, 36; Basil Gray, *Persian Painting*, Geneva: Skira, London: Macmillan, 1977, pls.1, 2.

지역에 운견문이나 능화문이 있는 직물이 전해졌을 것이고, 또 이란과 이라크의 금속기에도 능화에 가까운 문양이 13세기 전반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13세기에 이 지역을 정복하고 통치하였던 몽고의 영향으로 이 능화문은 이슬람 문화권의 금속공예에 은상감기법으로 나타나는 비슷한 형태의 능화문과 혼합되어 좀더 중국적인 요소를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차로 능화형의 형태가 양쪽만 뾰족하고 굴곡이 많아지는 형태로 변하였으며 금속기뿐 아니라 직물 또는 코란 성서의 책표지 장식으로도 응용되었다.

중국이나 고려의 능화문은 가로로 길쭉한 형상이 먼저 유행하였고 점차 통통해지거나 그 속에 들어가는 장식문양의 내용이나 형태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도자뿐 아니라, 금속기, 칠기, 직물 등에서 草花, 동물문, 기하학적인 문양, 산수인물문, 또는 龍鳳의 瑞文 등의 畫窓 역할을 하였다. 또한 명대의 청화백자, 칠기 등에서 유행하여 장식문으로 보편화되었다.

한국에서 조선시대는 능화문이 나전칠기의 문양으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도자기의 경우 여의두의 형태는 간혹 보이거나 12곡능화문은 조선시대 전기에는 별로 유행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는 능화문이 크고 8곡으로 단순해진 형태로 표현되어, 산수화의 畫窓으로 등장하면서 그 명맥이 이어진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공예품에 보이는 문양과 장식 연구에 있어 그 원류와 발달과정의 시야를 넓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12곡능화문의 발달과 전개를 통한 동서문화 교류의 일면을 고찰해 보았다. 능화문의 시원과 변천 그리고 각 지역에서의 발달과 전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연화문, 연주문, 당초문들과 같이 동서미술의 교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능화문의 시원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북방의 요, 금, 서하의 미술에서 보이는 능화문과 고려청자와의 연관성, 경덕진 청화백자의 이슬람 문화권으로의 전래와 그곳의 금속 공예미술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영향 등은 고대 東·西아시아 미술의 활발한 교류와 새로운 문양에 대한 호기심과 적극적인 수용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 주제어(key words) __ 菱花文(Nunghwamun, Ogival-shaped Pattern), 元代 青華白磁(Yuan Blue and White Porcelain), 이슬람 金屬工藝(Islamic Metalwork), 菱畫窓(Ogival-shaped Frame), 如意頭文(Juyitou Design), 雲肩文(Cloud Collar Pattern)

국문초록

이 논문은 토카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원의 청화백자 문양 중에서 주목되는 菱花文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능화문을 중국에서는 曲折文이라고도 부르며, 주로 12곡의 마름모꼴로 사방의 끝이 바깥쪽으로 뾰족한 형태이다. 네 꼭지 사이에 안쪽으로 들어간 곡면이 둘 있어 12곡능화형문이 많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8곡, 16곡 또는 20곡으로 변형된 문양들도 같은 능화문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현재 전하는 중국의 금은기 중에 唐(또는 북송)의 12曲菱花形의 은제접시가 영국 대영박물관에 있으며, 요대의 삼채접시에 8곡능화형으로 제작된 예들이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능화문이 장식 문양으로 표현된 예들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 능화형문양은 도자기 표면 장식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의 북방지역인 요, 북송 그리고 서하지역에서 유행하여 퍼진 것으로 보인다. 북송이나 서하지역의 자주요 계통의 철화도자의 문양이나, 요 금대의 전축묘의 벽돌 문양으로도 보이고, 여러 가지 식물 또는 동물문의 畵窓으로도 다양하게 응용되었으며 직물문양으로도 나타났다.

고려시대에서도 순청자나 은입사 금속정병 또는 鎗金漆經箱 등에 이 능화문 장식이 보인다. 그 유래를 중국과 연관시킨다면 고려 초의 요, 금, 그리고 북송 도자와의 관계가 보인다. 남아 있는 유물들과 비교하여 보면 중국의 북방 문화권에서 유행했던 문양임을 알려 주며 중국의 남송시대의 도자나 공예품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 능화문 장식의 전통은 북방 몽고의 원대로 이어져서 코발트 안료로 장식한 청화백자에서 유행하여 이슬람 문화권으로 전파되었다. 이스탄불의 토카피 박물관에 있는 원·명대의 청화백자에는 능화문과 더불어 이슬람 문화권에서 선호하던 문양들이 많이 보인다. 또한 고려 후기의 불교 관련 미술에 나타나는 능화문 역시 원대의 미술과의 연관성이 크다. 13세기 전반 몽고의 서방경략 이후 이슬람 문화권의 금속기 문양과 중국에 수출한 도자 문양에는 상호 연관성이 보이며 이 능화문은 이후 이슬람의 금속공예품의 문양 발달에도 반영되었다.

문양의 발전과 동서교류에서 唐草文이나 連珠文이 서방의 그리스나 서아시아의 사산조 이란의 미술에서 시작하여 실크로드를 따라 궁전이나 무덤벽화 또는 석굴벽화의 장식문으로 나타나고 또 도자기, 금속기, 직물 문양 등을 통해 고대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으로 전해졌던 것과 같이, 이 菱花文도 육로나 해로를 통해 이슬람 문화권과 동아시아 미술을 연결시켜 주는 국제적인 장식문양의 하나였던 것이다.

ABSTRACT

East–West Contact in the Ogival–shaped Pattern

Kim Lena

This paper deals with ogival-shaped pattern, *nunghwamun*, which is basically a quatrefoil consisting of four ogival arches. The pattern has many variations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curved lines, which appear in eight, twelve, sixteen and twenty.

A Tang (or Northern Song) silver plate in the shape of *nunghwamun* with twelve curved lines is housed in the British Museum, and several sancai (three-colored) ceramic dishes in the shape of *nunghwamun* with eight curved lines of Liao period are known. However, this paper focuses on the *nunghwamun* that was used to decorate the surfaces of ceramics, lacquer wares and metal objects, etc. Often this pattern served as a frame for various designs of flowers, birds and animals.

It appears that the pattern was popular in northern parts of China during the Liao, Chin, and Yuan dynasties, and also during the Goryeo dynasty in Korea that had close political and cultural ties with the states in northern China. This pattern then was transmitted to the west through the silk road, and especially after the westerward invasion of the Mongols upon the Islamic world in the thirteenth century. It is assumable that the major carriers of this pattern were the Chinese textiles and the Yuan and Ming blue-and-white porcelains that were brought to the Islamic countries as we see in the collection of the Tokapi Palace in Istanbul.

The newly introduced pattern of *nunghwamun* began to influence the designs of the

Islamic metalworks, but it was soon transformed into a Islamic fashion. The exchanges of patterns and designs between Islamic and Chinese arts occurred actively especially after the second quarter of the thirteenth century when the Mongols exerted a great influence on the greater Iranian world. In the tradition of the arts of the East and the West, this pattern is one of the most popular decorative motifs as were patterns like the honeysuckle vines and the beaded roundels.